

지금부터 1백5년 전에 31살로 세상을 떠난 변수(邊綏, 1861~1891)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학자로 꼽을 수도 있는 인물이다. 아직 근대적 의미의 과학이라고는 없던 조선시대 말기에 그는 미국에 유학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가 대학에서 공부한 분야는 농학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대학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 최초의 근대 농학자이며

美 유학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자 변수 (1861~1891)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과학자로 일컫는 변수(邊綏). 그는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미국 유학길을 떠나 메릴랜드주립대학 농과대학을 졸업, 한국인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농무부에 취직, 「일본의 농업」이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활약을 하던 중 31세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과학자로서의 큰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첫 과학자로도 꼽을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의 과학자로 제대로 활약하기 전에 그는 미국에서 황사하고 말았고, 이 사실 자체가 한국 과학사의 한 가지 비극이라 할 만도 하다.

그의 집안은 개화기에 많은 활동을 했던 중인(中人) 집안에 속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원주가 본관인 그의 집안은 아마 유복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이미 1982년에 이광린(李光麟)교수가 “한국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생 변수”라는 상세한 논문을 발표했고, 같은 해에 장수영(張水榮)교수는 “1883년의 전미사절단과 수행원 변수”란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 지금은 중부대 총장과 포항공대 총장을 맡고 있는 이 분들의 글을 참고하여 이 달에는 변수의 일생을 되새겨 본다.

김옥균·박영효와 일본 왕래

변수의 할아버지는 이름을 준(準)이라 했고, 아버지는 진환(晉桓), 그리고 어머니는 강릉 최씨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역과에 급제하여 역관으로 활약했던 것이 밝혀져있으니까, 그의 집안이 중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그의 형은 변건(邊健)이었고 그는 차남이었다. 변수는 일찍부터 아버지 덕택에 개화와 사람들을 따라 다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시인이어서 당대의 대표적 시인이며 지식인이었던 강위(姜瑋)와 교분이 있었고, 그 연줄로 변수는 당대의 선각자였던 강위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기도 했다. 김옥균 등 개화와 젊은이들은 바로 강위와 가까웠고, 그 때문에 변수는 그들과 사귄 수 있게 되었다.

1882년 3월 김옥균 등이 일본을 구경하러 가게 되자 변수는 그를 따라 일본에 갔고, 경도(京都)의 어느 학교에 들어가 양잠술과 화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그는 황급히 귀국하고 말았다. 군란이 끝나고 정부가 일본에 수신사 박영효(朴泳孝)를 파견하자 그는 다시 그를 따라 일본에 가게 되었다. 사신 일행이 귀국한 다음에도 김

朴 星 來

(한국외대 사학과교수·부총장 / 과학사)

옥균과 함께 일본에 남아있던 그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다음, 이듬해 3월 귀국했다. 1883년 7월 그는 다시 바다를 건너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향하게 되었다. 그 전해에 미국과 조선은 수호조약을 맺고 사절을 교환하기로 정한 바 있는데, 미국 공사 푸트는 이미 1883년 5월 서울에 부임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답례로 조선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절단을 역사에서는 보빙사(報聘使)라 부른다. 보빙사는 민영익을 우두머리로 하여 박영효, 서광범이 정식 대표가 되었고, 5명의 수행원이 따랐는데, 변수는 그 다섯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 통역을 한 명씩 대동했는데, 아직 당시까지 조선에는 단 한 명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883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일행은 현대문명이 발달하는 모습을 마음껏 구경하고 돌아왔다. 보빙사는 둘로 갈리어 귀국했는데, 박영효 등이 같은 길을 되돌아 온 것과 달리 변수는 민영익, 서광범을 따라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 귀국하게 되었으니, 그해 11월 16일 미국 군함 트랜트호를 타고 뉴욕을 떠나 1884년 5월 31일 인천에 도착했다. 조선인으로는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망명

요컨대 이런 경험을 통해 변수는 당시의 세계를 가장 잘 알게 된 조선인의 하나가 되었고, 이미 일본어를 할 뿐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영어에도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 일행을 수행하여 트랜트호를 타고 귀국한 27세의 미국 해군장교 피어크는 당시 변수와 서광범이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경험을 노트를 열심히 하며 여행했음을 기록해 남기고 있다. 민영익이 유교 서적을 열심히 읽으며 여행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였다고 이 미군 장교는 전한다.

귀국과 함께 그는 정부 관직을 얻어 일하기 시작했다. 외아문(지금으로 치면 외무부)의 주사가 되고, 이어 내아문 주사로 자리를 옮겼던 변수는 그해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주동 세력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정변과 함께 외아문 참사로 승진했던 그는 혁명이 실패하자 바로 김옥균과 함께 일본에 망명했다. 그로부터 1886년 1월 미국에 건너갈 때까지 그는 일본에서 머물며 갖은 고초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1886년 1월 변수는 미국에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마침 홍콩은행에서 민영익의 돈 2천파운드(약 1만6천달러)를 슬쩍해 빼내온 조선의 청년 민주호(閔周鎬 = 16살)와 윤정식(尹定植 = 19살)이 일본으로 스며들어 김옥균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본에 망명중이던 김옥균은 자신의 처지도 불편한 형편에 이들을 감쌀 엄두는 나지 않았으나, 그들의 흠친 돈이 민영익이 홍콩 판매에서 얻은 부당한 수입을 홍콩에 빼돌려 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못본 채 하기로 결심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그 돈 가운데 4천달러를 얻고 변수를 앞세워 그들을 미국으로 갈 수 있게 주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이런 곡절 끝에 1886년 1월 24일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미 일본어에 통달하고 있던 변수는 이번에는 서양 문명의 본바닥에 가서 마음껏 서양 문명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곧장 워싱턴에 도착한 이들 일행은 우선 영어를 익히기 위해 벌리츠어학원에 등록하여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다음 변수는 민주호와 함께 메릴랜드농과대학에 입학했다. 지금의 메릴랜드주립대학교의 전신이다. 1887년 9월 이들이 이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했을 때 이 대학은 학생이 모두 46명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다. 변수는 4년만인 1891년 6월 다른 미국학생 4명과 함께 졸업하여 이학사학위를 받았다. 아직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이 널리 퍼지지 않았던 시절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따지자면 최초의 학사 자격을 얻은 인물이 되었다. 물론 자연과학 쪽으로도 최초의 학사학위가 된다.

美 메릴랜드대 농학과 졸업

함께 입학했던 민주호는 1888년 귀국하고 말았는데, 아마 당시 미국공사로 와있던 조선 관리들의 설득으로 그리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미국에 갔던 윤정식에 대해서는 더욱 알려지지 않다. 재미있는 사실은 변수가 어떻게 학비를 감당했을까 하는 문제인데, 아마 그들이 처음에 미국에 가지고 온 1만달러 이상으로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흠친 민영익의 돈 1만6천달러 가운데 4천달러는 김옥균에게 넘겼고, 나머지 1만2천달러로 그들의 미국 생활 경비는 충분했을 것이다. 그 돈을 그들 셋이 어떻게 나눠 사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 때 메릴랜드농대의 1년 동안 학비

총액은 1백80달러에 불과했다.

이 돈이면 기숙사비 전액과 교과서, 학용품에서 세탁비까지 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동록금은 메릴랜드 주민이 아닐 경우 1년에 60달러를 더 냈다지만, 여하튼 그들이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얼마를 변수가 쟁길 수 있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는 돈 걱정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美 농무부 근무중 교통사고 희생

변수는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아 취직해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개화당의 일원으로 이미 쫓기는 신세였는데다가, 민주호, 윤정식과 함께 민영익의 돈을 훔친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귀국할 형편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1890년 1월에는 미국에 시민권을 신청해 놓고,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미국 농무부의 촉탁 자리를 얻게 되었다. 90일간의 연구 계약을 얻어 그는 일본 농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내기

로 한 것이다. 이래 저래 일본에서 2년이나 살았던 셈이고, 일본어에는 능통한 그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였음은 물론이다.

졸업 직후 1891년 7월 시작한 그의 연구는 3개월 뒤인 그해 10월 '일본의 농업'(Agriculture in Japan)이란 보고서로 완성되어 미국 농무부의 월간 보고서 제89호(1891년 10월)에 남아 있다. 그 보고에 변수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논문이 바로 그가 3개월 계약으로 완성해 제출한 보고서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이것이 변수가 농학도로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업적이라 할 수가 있다. 이 논문에 대해 농무부 차관 윌리츠는 훌륭한 어학적 재능과 농업 지식을 합쳐 놓은 작품이라고 격찬한 것으로 전한다. 그래서 그는 곧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논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계약을 맺었다. 한문에 밝은 그에게는 중국에 관한 연구 역시 그리 어려울 것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이 때까지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아닌 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변수는 같은 해 1891년

10월 22일 모교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철도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 그만 갑자기 달려든 급행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그 시간은 바로 완행열차가 그 역에 정거하는 시각이었는데, 엉뚱하게 급행이 지나가다가 그를 치어버렸던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이며, 최초의 근대 과학자라 할 수 있는 변수는 그 뜻을 피울 생각도 못한 채 대학 졸업하던 그해에 그만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다.

대학시절 가깝게 사귀던 엠멘 집안에서 가까운 천주교 묘지에 변수를 묻고, 그 위에 간단한 비를 세웠다. "변수를 기념하여... 그는 이 나라에 왔던 최초의 조선 사절단의 한 사람이었고, 1891년 6월 메릴랜드 농대를 졸업했으며, 1891년 10월 22일 대학역에서 열차에 치어 죽다"라는 비문이 새겨졌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의 비문에는 그의 한글 이름이 '벤수'라고 새겨져 있다. 그의 영어 이름 Penn Su를 누군가 한글로 옮겨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 미국 땅에서 둘레 새겨진 최초의 한글 글자일 것 같다. ⑤7

● 해외단신

목성탐사선, 가니메테위성에 접근

1989년 10월에 발사된 미국의 무인 목성탐사선 갈릴레오호가 1995년 12월 목성궤도에 진입한지 약 6개월이 지난 6월 27일 오후 3시 29분(한국시각) 목성의 거대한 위성 가

니메데에 8백38km까지 접근했다. 갈릴레오가 탐사할 4개의 목성 위성 가운데 하나인 가니메데는 1610년 갈릴레오가 발견한 위성으로 태양계내에서 발견된 60여개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이 위성은 직경이 5천2백30km로 달이나 수성보다도 크고 화성 크기의 3분의 2에 달해 행성에 가까운 위성이다.

이 위성은 얼음과 바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니메데의 영상자료가 지상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6분으로서 최근 접 영상은 6월 27일 오후 4시 5분 경에 받게 되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앞으로 1년반 동안 더 목성궤도를 돌며 자료를 수집, 지구에 전송할 예정이다.